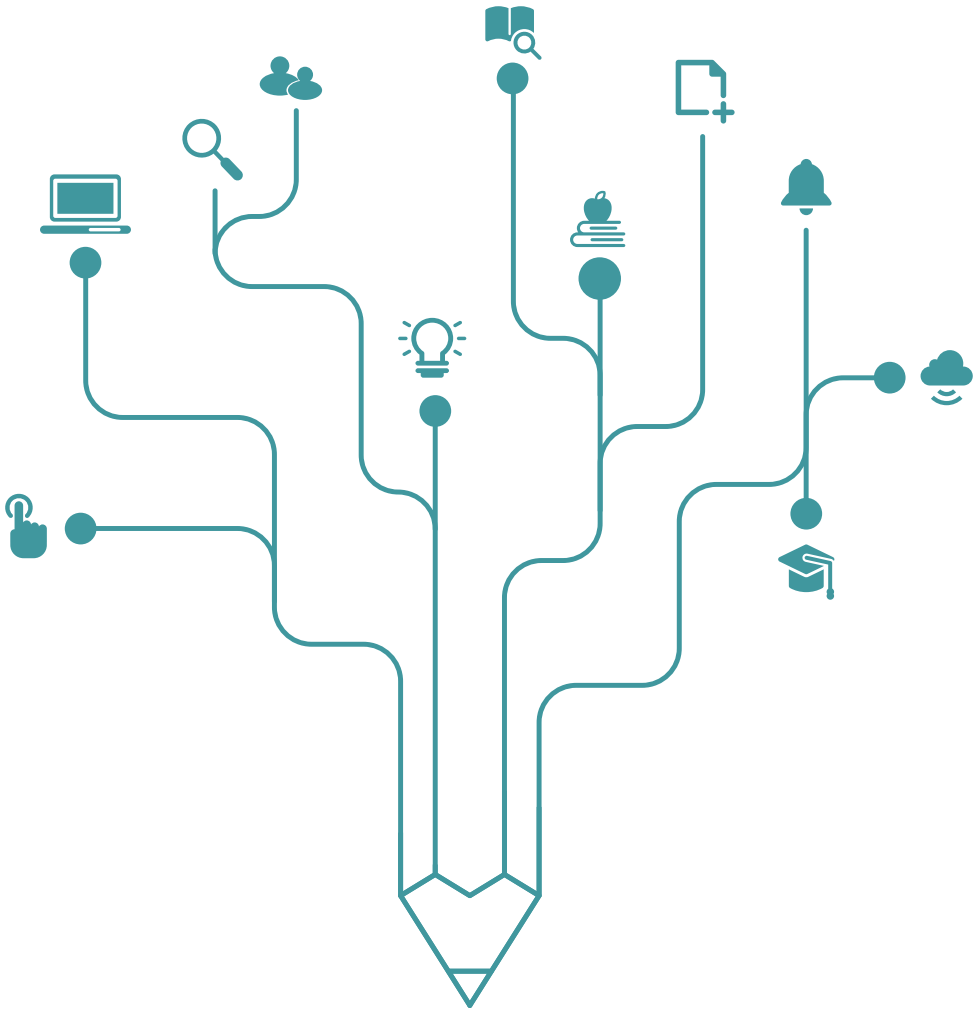
KDIS Working Paper 22-13

Marriage Age Normality and Marriage Intention among Korean Young Adults

Seulki Cho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aeeun Cho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DI SCHOOL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Marriage Age Normality and Marriage Intention among Korean Young Adults

Seulki Cho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aeeun Cho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Will the perception of marriage normality increase or decrease the intention to marry? This study attempts to approach this problem by considering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marriage normality and the differences by gender. Analyzing 834 never-married single Korean adults from the 2nd Survey on Koreans' set of value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in the COVID-19 era conducted on June, 2022, we found that most unmarried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were aware of the marriage age normality. However, the influence on marriage inten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it was a norm that one thinks for oneself or recognizes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case of thinking that there was a prime age at marriage, we observ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to marry. On the other hand, if the respondents think there is a prime age at marri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we observ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to marry. These contradictory relationships were more evident in the case of women.

Keywords

leitbild, marriage age normality, marriage intention, prime age at marriage

청년들이 인식하는 결혼 연령규범과 결혼의향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새은(한국교원대학교)

1. 서론

2015년과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44세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2015년 74.5%에서 2018년 58.8%로 낮아졌다. 또한 20~44세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은 64.7%에서 45.3%로 낮아졌다(이소영 외, 2018). 어떤 이유에서 젊은 사람들의 결혼 의향이 감소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두가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소위 결혼에 대한 규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것은 가족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약화와 연결된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다 중요시 하다보니 청년들의 결혼 의향이 낮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성평등한 가치관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에겐 전통적인 가치관이 맞이 않아 결혼 의향이 줄어들었다는 입장도 있다. 젊은 세대는 아직도 남아있는 낡은 전통적 가치관이 불평하다보니 결혼도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결혼 의향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결혼 규범성을 다차원성과 젠더에 따라 다른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퍼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연구에서는 결혼 적령기라는 결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결혼규범성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젊은 미혼남녀의 결혼 연령규범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결혼을 중요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의향도 높게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보면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나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는 등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한 응답자일수

록 결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중백, 2013; 이삼식, 2006; 이지나, 황명진, 2019; 임병인, 서혜림, 2021; 진미정, 정혜은, 2010). 즉 결혼에 대한 규범성 약화가 결혼 의향의 감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효미(2017)는 청년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였는데,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에 거부감이 적은 미혼자들에게서 결혼의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30대 미혼 여성에게서 독신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 결혼의향이 낮음을 발견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이나 규범성이 청년 세대들의 결혼의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성 평등한 사회로 변화할 때 결혼의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 즉 혼인으로 측정되는 결혼 의향, 이혼으로 측정되는 결혼의 안정성, 출산율로 측정된 출산력을 포함한 가족의 형성 정도가 성평등한 사회로 발전하는 초기에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일 수 있지만, 크게는 U턴을 그리며 성평등이 일정수준 이상 발전한 이후에는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록 가족의 형성 정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계봉오와 김영미(2016)는 ISSP 국제비교 자료를 활용해서 U자형 변화양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저출산 국가들은 '이행의 계곡'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전통적 가치관과 결혼의향의 관계에는 서로 상반된 시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 규범의 다차원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어로 leitbild(영어로 guiding image)는 우리 말로 '가족상'으로 번역될 수 있다. Leiten은 무언가로 이끈다/안내한다는 동사이고, bild는 그림 내지 이미지를 뜻하는 명사이다. 즉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이라고 하였을 때, '살갑게 함께 식사준비를 하는 부부', '아들의 등을 밀어주는 아버지', '딸과 손잡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상이 단순한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가족규범이 되는 경우는, 이러한 심상들이 집단적으로 공유되며 그려지는 '규범'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 때 규범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행동이 개인적으로 선호되며,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동시에 이러한 생각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Lück et. al. 2017). 결혼규범을 이에 적용하자면 결혼에 대한 개인적 선호, 그리고 사회적인 기대, 끝으로 이 두가지 생각이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족상'은 하나의 단순한 그림이 아니며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조작적 정의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Lück과 Ruckdeschel 2018)

대표적인 결혼규범성은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에서 볼 수 있다. 적령기에 대한 규범성이 존재한다면 해당 연령대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에 대한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연령대가 지나갔을 때도 이를 보상하거나 따라잡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결혼적령기로 측정된 결혼규범성을 두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적령기에 대한 인식이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적령기에 대한 인식이다. 앞의 사고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관에 기반한 스스로의 행동기준이다. 이것은 일반 대중의 시각과는 다를 수 있다. 반면에 뒤의 사고는 일반 대중의 시각으로 자신이 인식하는 부분이다. 이 또한 자신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반대중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은 내재화된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차원의 혼재가 결혼규범성과 결혼의향의 상반된 분석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즉 스스로 결혼규범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질 수 있지만, 타인의 시각으로만 이를 인식할 경우 반대로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결혼적령기로 보자면, 스스로 적령기를 인식할 경우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변의 인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력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의 형성과 확대라는 선호가 일-가정이 양립하기 힘든 사회 현실과 부딪혔을 때 발생한다. 가부장적 사회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남성 중심의 일인부양자모델과 여성의 육아와 가사책임을 통해 해결하였다. 하지만 일인부양자모델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젠더 분업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규범으로 인식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역할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여기에 전통적 가치관과 결혼의향의 관계 양상의 모순점을 이해하는 두번째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젠더에 다르게 처한 상황과 이를 이해하는 인식, 그리고 규범성이다. 전통적 가치관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젠더에 따라 다른 만큼, 그것의 부정적 영향력의 크기도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후에서는 결혼규범성의 다차원성과 젠더에 따른 특성에 주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혼 청년들이 결혼과 관련하여 느끼는 연령규범(결혼적령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인식하는 결혼 연령규범이 어떠하고 이러한 규범성이 결혼의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Q1. 미혼남녀가 인지하는 결혼 적령기 규범은 어떠한가?

Q2. 미혼남녀가 인지하는 결혼 적령기 규범성과 결혼의향은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KDI국제정책대학원 Population Policy LAB.에서 25-49세의 청장년층 2천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수집한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2차조사 자료(이하 결혼가치관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엠브레인 리서치패널을 대상으로 한국인 성인남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성, 연령, 지역별 층화표집을 하여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의뢰 메일을 받은 적격 조사 대상자 중 39.8%가 접속을 하였고, 그 중 71%가 응답을 완료하였다. 최종 응답률은 28% (AAPOR기준 RR3)이었다.

이 연구는 결혼적령기뿐 아니라 결혼의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을 응답자 중에서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비동거중인 미혼남녀 834명으로 한정하였다.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은 '귀하 본인의 생각'과 응답자가 느끼는 '일반 대중의 생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자세한 문항은 Appendix 참조). 각각에 대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결혼적령기 유무를 묻고, 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적령기의 시작과 끝을 만나이로 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응답자 자신의 결혼적령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는 남성의 결혼적령기를, 여성인 경우는 여성의 결혼적령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가공하였다.

결혼의향은 '귀하는 현재 결혼이 하고 싶으십니까?'라는 문항과 '귀하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으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 내지 의향이 있음을 측정하고자 하였기에, 현재 결혼하고 싶거나 나중에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먼저 결혼적령기와 결혼의향에 대한 기술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파악한 후, 결혼적령기 인식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우리사회에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한가? 표1은 '결혼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25~49세 한국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은 남자의 65.7%, 여자의 47.3%에 달했다. 여기에 나중에라도 하고 싶다를 더한 긍정적인 결혼의향자의 비중은 남자는 78.6%, 여자는 59%에 달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19.6%p 더 높았다.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여성에게서도 절반 이상이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 결혼이 지금은 물론 나중에도 하기 싫다는 강도높은 부정 의향은 남자는 7.9%인 반면 여자는 16.2%이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서 이러한 부정적인 의향은 8.3%p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부정 의향은 여성에게서도 20% 미만의 소수 의견이었다.

표1. 성별 결혼의향의 분포

	남자	여자
현재 결혼하고 싶다	65.7%	47.3%
나중에라도 하고 싶다	12.9%	11.7%
현재 하고싶지 않다&나중에도 하기싫다	7.9%	16.2%
현재 하고싶지 않다&잘 모르겠다	13.5%	24.7%

자료: '결혼가치관조사' 원자료 분석

표2는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여부를 응답자의 성과 연령별로 일반대중의 의견과 자신 스스로의 의견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두 응답자들의 인식 속에 일반대중들이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남자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여자들은 그보다도 높은 95% 이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대부분 내재화된 결혼적령기에 대한 규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응답자 자신 스스로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중은 크게 낮았다. 남자는 25~39세까지는 60% 전후 수준이었는데 40대에 접어들면 50% 초반으로 조금 낮아졌다. 여자는 25~39세까지는 50% 전후이었는데 40대에서는 40% 초반으로 낮아졌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약 10%p 낮은 수준이었다.

40대에 적령기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실제로 적령기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다른 두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가능함에 주의해서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적응이다. 응답자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령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 연령대가 점차 확대되거나 나중에는 적령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가질 수도 있다. 스스로 연령 변화에 따라 적령기 규범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응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자기선택편향이다. 20대에는 결혼의향과 상관없이 대다수가 미혼인 상태이었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령기 인식을 스스로 강하게 갖고 있고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고령층으로 갈수록 미혼으로 남아있는 집단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표2. 성, 연령별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

		연령대	25-49	25-29	30-34	35-39	40-44	45-49
남자	일반	있다%	88.4	90.2	89.2	85.7	92.9	80.0
	대중	없다%	11.6	9.8	10.8	14.3	7.1	20.0
		사례수	458	164	120	63	56	55
	자신	있다%	58.5	61.6	57.5	61.9	53.6	52.7
	스스로	없다%	41.5	38.4	42.5	38.1	46.4	42.3
		사례수	458	164	120	63	56	55
여자	일반	있다%	95.5	95.9	98.9	93.3	93.8	90.3
	대중	없다%	4.5	4.1	1.1	6.7	6.3	9.7
		사례수	376	146	91	60	48	31
	자신	있다%	48.1	48.6	50.6	51.7	41.7	41.9
	스스로	없다%	51.9	51.4	49.4	48.3	58.3	58.1
		사례수	376	146	91	60	48	31

자료: '결혼가치관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적령기는 몇 살까지일까? 표3은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 만나이가 몇 살까지인지를 보여준다. 즉 적령기로 응답한 연령범위의 상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남자의 경우 일반대중의 생각으로는 36.4~37.9세까지이었고,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36.5~39.1세까지이었다. 둘 사이의 차이는 40~44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1세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는 일반대중의 생각으로는 33.8~36.5세까지로 분포하였고,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34.2~38.5세까지이었다. 적령기 유무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에 있어서 일반대중과 스스로의 생각 간에 간극이 더 넓었던 것처럼, 실제 적령기 연령상한에 있어서도 두 생각 사이의 간극이 더 넓은 편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적령기 차이는 2세 전후였다. 통계청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자의 평균초혼연령은 33.4세이고 여자는 31.1세로, 남자가 2.3세 더 높게 나타났다. 적령기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3. 성, 연령별 결혼적령기의 연령 상한에 대한 인식

		연령대	25-49	25-29	30-34	35-39	40-44	45-49
남자	일반	평균연령	36.9	36.4	36.4	37.5	37.9	37.6
	대중	S.D.	3.6	3.4	3.0	4.5	3.4	4.5

		사례수	405	148	107	54	52	44
	자신	평균연령	37.2	36.5	36.8	38.0	39.1	37.2
	스스로	S.D.	3.9	3.6	2.6	4.4	4.5	5.0
		사례수	268	101	69	39	30	29
여자	일반	평균연령	34.6	33.8	34.4	35.0	35.8	36.5
	대중	S.D.	3.5	2.9	3.2	3.5	4.5	4.0
		사례수	359	140	90	56	45	28
	자신	평균연령	35.6	34.2	35.9	36.8	36.3	38.5
	스스로	S.D.	3.3	2.7	3.0	2.9	4.6	2.4
		사례수	181	71	46	31	20	13

자료: '결혼가치관조사' 원자료 분석

그렇다면 결혼적령기에 따라 결혼의향은 어떻게 달라질까? 표4에서는 응답자가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 응답자의 연령과 비교하여 적령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결혼의향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대중의 시각에서 결혼적령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68.6%이었다. 적령기가 있다고 답한 경우, 적령기 이전일 경우 가장 결혼의향이 높아 78.8%에 달했고, 적령기 중간에서는 이와 비슷한 72.2%를 보였다. 적령기가 지나간 경우에는 59.6%로 결혼의향이 10%p이상 낮아졌다. 하지만 적령기가 없다고 답한 경우보다는 9%p 높은 수치이었다. 적령기가 비록 지나갔다고 느끼더라도, 적령기가 있다고 답한 경우에 결혼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 적령기가 있다고 답한 경우에는 결혼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적령기 이전과 중간은 각각 85.5%와 84.2%로 결혼의향 비중이 대다수였다. 적령기가 지난 경우에도 70%에 달했다. 적령기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56.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대중의 생각보다,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 적령기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경우 결혼의향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4. 결혼적령기에 따른 결혼의향

			적령기	적령기 있음		
			없음	Before	적령기	After
전체	일반	의향있음%	68.6	78.8	72.2	59.6
(N=834)	대중	의향없음%	31.4	21.2	27.8	40.4
	자신	의향있음%	56.6	85.5	84.2	70.0

	스스로	의향없음%	43.4	14.5	15.8	30.0

자료: '결혼가치관조사' 원자료 분석

표5는 표4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준 것이다. 남자의 경우 일반대중의 생각과 자신 스스로의 생각이 적령기 이전과 중간, 적령기 없음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적령기가 지나간 응답자의 경우 자신 스스로 적령기가 있는데 지나갔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80.7%가 결혼의향이 있었지만, 일반 대중의 생각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71.7%로 9%p낮게 차이가 났다. 보다 극명한 차이는 여자에게서 발생했다. 일반대중의 생각으로 적령기 이전에는 70.8%에 달했던 결혼의향은 적령기 중에는 61.2%로 적령기가 지나면 48.4%로 크게 떨어졌다. 적령기가 지나간 경우는 적령기가 없다(64.7%)고 답한 경우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자신 스스로 적령기가 있다고 답한 여성은 적령기 이전과 도중에는 각각 82%와 84.3%의 결혼의향을 보였다. 이는 스스로 적령기 이전이나 이후에 있다고 답한 남자와 비견할 만큼 높은 수치이었다. 하지만 적령기가 지났다고 여기는 경우 결혼의향은 56.3%로 크게 떨어졌다. 적령기가 지났다고 느낀 남자에게선 소폭 하락이었다면 여자는 28%p 달하는 상당히 큰 차이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스스로 적령기가 없다고 답한 여자는 그보다도 낮게 결혼의향이 43.1%에 불과했다. 여자에게는 스스로 인식하는 결혼규범성이 결혼의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5. 성별 결혼적령기에 따른 결혼의향

			적령기 없음	적령기 있음		
				Before 적령기		After
남자 (N=458)	일반 대중	의향있음%	69.8	83.9	82.2	71.7
		의향없음%	30.2	16.1	17.8	28.3
	자신 스스로	의향있음%	70.5	87.8	84.1	80.7
		의향없음%	29.5	12.2	15.9	19.3
여자 (N=376)	일반 대중	의향있음%	64.7	70.8	61.2	48.4
		의향없음%	35.3	29.2	38.8	51.6
	자신 스스로	의향있음%	43.1	82.0	84.3	56.3
		의향없음%	56.9	19.0	15.7	43.7

자료: '결혼가치관조사' 원자료 분석

표6은 표5와 같은 분석을 만40세 미만의 응답자로 한정해서 다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적령기가 지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적응과 자기선택편향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상대적으로 표5에서와 다르게 수치 변화가 큰 곳은 적령기가 지났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적령기가 지난 남자의 경우 일반대중의 생각에서 결혼의향이 82.1%로 적령기 이전이나 적령기 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었다. 이에 반해 표5에서보다는 10.4%p 더 높았다. 적령기가 지난 여자의 경우도 일반대중의 생각에서 결혼의향은 58.2%로 적령기 중간의 61.6%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표5에서보다 9.8%p 높았다. 적령기가 지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서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은 대부분 적응과 자기선택편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의 생각에서는 적응과 자기선택편향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표5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크게 차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샘플수 감소에 따라 분포값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6. 성별 결혼적령기에 따른 결혼의향 (만40세 미만으로 한정)

			적령기 없음	적령기 있음		
				Before 적령기		After
남자 (N=347)	일반 대중	의향있음%	71.1	83.9	82.3	82.1
		의향없음%	28.9	16.1	17.7	18.9
	자신 스스로	의향있음%	74.6	87.8	86.1	76.9
		의향없음%	25.4	12.2	13.9	13.1
여자 (N=297)	일반 대중	의향있음%	72.7	70.8	61.6	58.2
		의향없음%	27.3	29.2	38.4	41.8
	자신 스스로	의향있음%	46.3	82.0	85.2	58.8
		의향없음%	53.7	18.0	14.8	41.2

자료: '결혼가치관조사' 원자료 분석

표7은 결혼의향을 종속변수로, 두가지 시각에서 적령기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연령, 학력, 주관적 계층, 지역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주관적 계층은 1~9단계 중에서 응답자가 생각한 계층 지위를 답한 수치를, 지역은 동지역

을 1, 읍면 지역을 0으로 코딩하였다.

표7. 적령기 존재 인식에 따른 결혼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1 남녀전체	모델 2 남자	모델 3 여자	모델 4 남, 40 세미만	모델 5 여, 40 세미만
적령기 있음(스스로)	1.220***	0.718**	1.528***	0.545	1.724***
	(0.163)	(0.242)	(0.238)	(0.299)	(0.279)
적령기 있음 (대중)	-0.392	0.178	-0.819	0.326	-0.952
	(0.284)	(0.342)	(0.568)	(0.416)	(0.733)
연령	-0.045***	-0.037*	-0.073***	-0.027	-0.093**
	(0.012)	(0.016)	(0.018)	(0.037)	(0.034)
학력	0.0278	0.716**	-0.138	1.033***	-0.497
	(0.171)	(0.244)	(0.255)	(0.295)	(0.306)
주관적 계층	0.111*	0.125	0.167	0.134	0.166
	(0.054)	(0.075)	(0.087)	(0.090)	(0.103)
지역	-0.089	-0.178	0.279	-0.324	0.040
	(0.291)	(0.403)	(0.464)	(0.530)	(0.565)
상수	1.568*	1.239	1.994*	0.826	3.139*
	(0.610)	(0.825)	(1.015)	(1.346)	(1.438)
사례수	834	458	376	347	297
LL	-467.9	-222.6	-220.6	-153.5	-167.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7의 모델1은 미혼남녀 834명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스스로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관련성(ß=1.220)이 나타났다. 일반대중의 시각에서 적령기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결혼의향은 부정적인 관련성(ß=-0.392)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델2와 모델3은 같은 모델을 성별로 분리해서 분석한 것이다. 모델2와 모델3 모두 스스로 적령기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결혼의향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남자(ß=0.718)에게서 보다 특히 여자(ß=1.528)에게서 긍정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모델4와 모델5는 40세 미만의 남녀 만으로 각각 한정해서 같은 분석을 한 것이다. 남자에게서는 스스로 적령기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의 결혼의향과 긍정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지만, 여자에게서는 여전히 유의성이 유지되었고, 긍정효과의 크기(ß=1.724)는 오히려 더 커졌다.

표8. 적령기 시기에 따른 결혼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1 남녀전체	모델 2 남자	모델 3 여자	모델 4 남, 40 세미만	모델 5 여, 40 세미만
적령기 스스로			*Reference category=적령기 없음*		
Before	1.243***	0.770	1.649***	0.757	1.671***
	(0.306)	(0.457)	(0.431)	(0.465)	(0.435)
Middle	1.367***	0.542	2.006***	0.475	1.959***
	(0.219)	(0.302)	(0.344)	(0.350)	(0.363)
After	1.031***	1.162**	0.735*	0.289	0.572
	(0.269)	(0.419)	(0.374)	(0.879)	(0.584)
적령기 일반대중			*Reference category=적령기 없음*		
Before	0.020	0.412	-0.225	0.251	-0.575
	(0.346)	(0.452)	(0.626)	(0.498)	(0.790)
Middle	-0.192	0.487	-0.634	0.336	-0.994
	(0.298)	(0.377)	(0.573)	(0.434)	(0.750)
After	-0.740*	-0.379	-0.863***	0.349	-0.912
	(0.311)	(0.402)	(0.582)	(0.739)	(0.800)
학력	0.0244	0.758**	-0.208	1.020***	-0.530
	(0.172)	(0.248)	(0.258)	(0.296)	(0.310)
주관적 계층	0.106	0.132	0.174*	0.141	0.204*
	(0.054)	(0.075)	(0.089)	(0.090)	(0.103)
지역	-0.128	-0.218	0.246	-0.336	-0.055
	(0.291)	(0.405)	(0.468)	(0.531)	(0.575)
상수	0.060	-0.078	0.529*	0.015	0.225
	(0.435)	(0.573)	(0.773)	(0.703)	(0.954)
사례수	834	458	376	347	297
LL	-467.9	-222.6	-220.6	-153.5	-167.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앞서 표7에서 적령기 인식을 가변수로 다루었다면 표8에서는 적령기 없음을 참조범주(reference category)로 두고 이에 대비되는 결혼적령기 이전, 중간, 이후에 따라 결혼의향에 주는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델1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스스로 기준에 적령기 없다고 답한 경우에 비해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세가지 상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가

장 긍정 효과가 큰 경우는 적령기 중간(ß=1.367)인 경우이었고, 가장 낮은 경우는 적령기가 지난 경우(ß=1.031)이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스스로 적령기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적령기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그 정도는 적령기 이전보다 적령기 중간에 소폭 높아지며, 적령기가 지나간 경우에는 다소 하락하지만 적령기가 없다고 한 경우보다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대중의 시각에서 적령기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에 비해,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 적령기 이전은 0에 가까운 수치(ß=0.020)로 큰 차이가 없었고, 적령기 도중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ß=-0.192)를 보였다. 하지만 적령기 이전과 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기에 추정된 계수값을 신뢰하기 어렵다. 주목할 부분은 적령기가 지났다고 생각한 경우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ß=-0.740)가 발견되었다. 스스로 인식하는 적령기의 경우는 설사 이 시기가 지나가도 결혼의향에 긍정효과가 나타났지만, 일반대중의 시각에서 인식한 적령기는 이 시기가 지나갈 경우 부정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에서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스스로 생각한 적령기가 지나간 경우의 긍정효과 뿐이었다. 이에 반하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모델3를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적령기의 긍정효과와 일반대중의 시각에서 본 적령기의 부정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스로 생각하는 적령기의 긍정효과는 적령기 이전(ß=1.649)보다는 적령기 도중(ß=2.006)에 더 크게 나타났다가, 적령기 이후(ß=0.735)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긍정효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대중의 시각으로 인식하는 적령기로는 적령기가 지났을 경우 부정효과(ß=-0.863)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했다.

모델4와 모델5는 이를 다시 40세 미만의 남녀만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분석한 것이다. 이때 남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모두 사라졌고, 여자의 경우는 스스로 인식하는 적령기에서 적령기 이전과 도중에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적령기가 지나서의 경우는 모델3에서와 달리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다.

5. 결론

우리사회에서 적령기라는 결혼 연령규범에 대해 대부분의 미혼 남녀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령규범이 규정하는 적절한 범위(적령기) 중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성별에 따라 결혼 의향에는 차이도 나타났다.

또한 결혼적령기를 통해 본 결혼규범성에 대한 인식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적

령기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스스로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일반대중의 시각 속에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이러한 효과가 크지 않거나 불분명했던 반면에, 여자는 보다 뚜렷하게 긍정과 부정 효과가 대비되었다.

즉, 결혼 압력과 같은 규범에 성별로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연령규범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결혼 압력을 느끼는 경우 결혼 의향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규범성이 결혼의향에 주는 영향력에서 긍정효과와 부정효과가 혼재했던 것은 결혼규범성의 다차원성을 통해 이해 가능했다. 자신 스스로 느끼는 규범성과 일반 대중의 시각으로 인식하는 규범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 것이다.

참고문헌

계봉오, 김영미(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4-06.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pp.1-24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pp.95-140.

이지나, 황명진. (2019).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71, pp.117-151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조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37.

임병인, 서혜림(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pp.31-51.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자에게 결혼이란?. 육아정책Brief. 56호

통계청. (2022). 2021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Lück, D., Diabaté, S., & Ruckdeschel, K. (2017). Cultural Conceptions of Family as Inhibitors of Change in Family Lives: The 'Leitbild'Approach. In *Family Continuity and Change* (pp. 61-86). Palgrave Macmillan, London.

Lück, D., & Ruckdeschel, K. (2018). Clear in its core, blurred in the outer contours: culturally normative conceptions of the family in Germany. *European Societies*, *20*(5), 715-742.

Appendix. 결혼적령기와 결혼의향 측정 설문문항

A3. '결혼 적령기'에 대한 귀하 본인의 생각과, 귀하가 느끼는 일반인들의 생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귀하의 생각은 일반인의 생각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분	<귀하의 생각>		<일반 대중의 생각>	
	있다고 생각 한다	없다고 생각 한다	있다고 생각 한다	없다고 생각 한다
1) 남성의 결혼적령기	①☞A3-1-1로	②	①☞A3-1-2로	②
2) 여성의 결혼적령기	①☞A3-2-1로	②	①☞A3-2-2로	②

A3-1. 그렇다면 결혼적령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만나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귀하의 생각>	<일반 대중의 생각>
1) 남성의 결혼적령기	A3-1-1) _____세부터 _____세까지	A3-1-2) _____세부터 _____세까지
2) 여성의 결혼적령기	A3-2-1) _____세부터 _____세까지	A3-2-2) _____세부터 _____세까지

D1. 귀하는 현재 결혼이 하고 싶으십니까?

① 하고 싶다 ☞D 2 로 ② 하고 싶지 않다 ☞D1-1로

D1-1. 귀하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① 언젠가는 하고 싶다
②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